

생활불교용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자네의 진면목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생활속에서 자주 쓰고있는 면목은 ‘체면’ ‘남에게 드러낸 얼굴’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본래 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을 알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여 모든사람이 지니고 있는 깨끗하고 맑은 진수(眞髓)를 일컫는 말로 ‘불성(佛性)’과 같이 쓰인다. ‘본래의 면목’을 중시한 대표적인 조사(祖師)는 육조 혜능(慧能)스님일 것이다. 혜능스님은 천민출신으로 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스승인 5조 홍인(弘忍)스님으로부터 가사와 발우를 전해받는다. 이처럼 혜능이 홍인으로부터 인가를 받게되는 계기도 ‘본래의 면목’과 관련이 있다. <육조단경>에 보면, 혜능은 매우 어리고 누추한

면목(面目)

본래부터 지닌 맑고 깨끗한 성품
‘체면’ ‘남에게 드러낸 얼굴’로 쓰여

모습으로 홍인대사의 방을 처음 찾았다.
“어디서 왔는가?”
“영남(嶺南)에서 왔습니다.”
“영남이라면 보잘 것 없는 천민지역 사람이군. 그런 곳 사람이 어찌 부처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가?”
“사람은 남쪽에서 살기도 하고 북쪽에서 살기도 하며 북쪽 사람은 상류층의 대접을 받으나 남쪽 사람들은 천대받는 소의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성(佛性)이 남과 북, 부자와 천민,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불성을 얻으러 왔습니다.”
면목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하여 거짓이 없으니 진실불허(眞實不虛)하다. 동근달이 많은 물에 비치면 맑고 아름답게 비친다. 그러나 찌그러진 그릇에 탁한 물을 담아 보면 달은 찌그러지고 더럽게 비친다. 진면목도 그와 같아서 사람마다 면목은 같지만 그 면목을 지키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목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면목이 선다’고 한다.
이제부터 면목없는 것을 하지 말자. 면목을 찾아내서.
※참고: 안길모꼐 ‘이판사판 아담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자녀에게 긍정적 기대 심자”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4>

자기충족예언과 일체유심조 ①

사회심리학(社會心理學)의 개념인 ‘자기충족예언(自己充足豫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현대적 해석의 한 측면이기에 우리의 관심을 끈다.

자기충족예언은 자성예언(自成一豫言: self-fulfilling prophecy)이라고도 하며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이 테두리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미국의 오크학교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다. 이 학교는 6학년까지 18개 학급인데 학년 초에 검사를 실시하고 학급 담임에게 20%의 아동의 명단을 주며 “검사결과를 보면 여기에 적힌 아동은 학년말에 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담임선생은 해당 아동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 아동들은 이 담임선생의 이 말을 확신하고 있었다. 1년후에 이들의 성적은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며 학년 초의 예언이 맞는 셈이 되었다. 그런 데 실은 학년 초에 실시한 검사는 지능 검사였고 20%의 아동은 아무나 막 골랐으며, 그 명단을 담임선생에게 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

“그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면,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여 주었다. 이 말을 확신한 이 사람은 단숨에 이 고개로 달려가서 여러 번 넘어졌더니 병은 곧 나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현상을 흔히 본다. 자녀에게 “너는 부자가 되기는 다 틀렸어. 밥만 굶지 않아도 천만 다행이야”라고 주위에서 말하며 이 말을 자녀가 믿으면 평생동안 가난하게 살 확률이 크다. 부모가 자녀를 우수한 자질을 가졌다고 기대하고 그러한 대접과 인정을 해주면 그것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자녀는 이 기대에 맞추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할 수 있다. “너는 효자다”라고 부모가 기대하면 이 기대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는 효자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충족예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한 측면이라고 할



그림 · 이준석

“우수한 자질 가졌다고 인정해주면 의식·무의식적 예언대로 행동”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철저한 불자’라고 말하고 기대하면, 그 사람은 불자로서의 확신을 가지며, 따라서 불자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

자기충족예언(自己充足豫言)을 일체증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과의 관계에서 보면 더욱 흥미롭다. 즉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고 확신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의 테두리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좀더 넓혀 생각하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나에게 불성이 있다고 믿을 때 불국토(佛國土)를 건설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극단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도덕적인 타락은 위험수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절도, 강도, 성폭행, 살인 등의 끔찍한 범죄행위와 흡연, 음주, 환각제 복용 등이 청소년들에게 퍼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행은 연소화, 포악화의 경향으로 치달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고도산업사회가 빚어내는 잘못된 물질위주, 관능적 향락문화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비도덕성이 날뛰고 출추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이와 같은 비도덕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인색치 않다.

이와 같은 위기에서 인류를 구출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불자에게 부과된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우리 불자는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 시키기에 앞서 불자인 우리를 스스로가 확신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은 자기충족예언에 따라 그 행동도 불자다워지게 된다. 나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다. 불자는 불자 아닌 사람들의 생활에 비하여 모든 면에 걸쳐서 모범적이어야 한다. “사람을 보고 그 종교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은 철저히 잘못된 말이다. 불교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자들이 다른 종교인에 비해 도덕적 우월성을 지닐 때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일체유심조를 “자기의 사람 됨됨은 자기 스스로 마음 가지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풀이 한다면 사회심리학의 자기충족예언은 일체유심조의 한 면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짐에 의하여 나 스스로가 지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싫

어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이 마음은 틀림없이 저 사람으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만 보았기 때문이다. 원인은 나에게 있지 결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이 좋아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다. 상대편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 테두리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이 원인은 상대편도 나를 좋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 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나는 매주 등산을 하는데 등산로 길 옆에 정자가 있다. 어떤 날은 정자를 분명히 보고 지나가지만 어떤날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이때 나는 정자를 보는 것은 나의 눈이 아니라 마음임을 알게 된다. 겨울에 춥다고 생각하여 움추리면 더 추워지고 습지 않다고 가슴을 활짝 펴면 추위를 덜 느낀다. 일체유심조이다.

나의 삶은 나 스스로 지어 나가는 것이며 남이 나의 삶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전생의 업의 탓으로 돌리는 운명관에 사로잡히지 말자. 전생의 업도 나의 마음 가짐에 의해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나는 일체유심조의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결과의 원인
나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불성 있다
믿게 하는 일
인류구원의 길

자기충족예언(自己充足豫言)이다.

“너는 1년후에 성적이 현저하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주위에서 기대하고 이 기대를 아동이 믿으면 아동은 자신이 믿는 성적 향상을 위해 공부할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것을 예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충족예언은 우리의 전래동화 ‘3년 고개’에도 나타나 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전해 내려 오는 고개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그 사람은 그 날부터 몸져 누웠다. 이를 본 이웃 사람이

Advertisement for 'China Buddhist Holy Land' (중국불교성지순례) featuring a scenic landscape background. Text includes: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It lists departure dates (Nov 18), fees (1,150,00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Buddhist TV Department.